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2024 KEPCO의 자기소개서



나는 [**다정**] 이다

상당수의 인간관계를 회사에서 겪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도, 감사한 동료들도 다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제 복은 다 인복으로 간 것 같습니다. 주변 대리님들도,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는 차장님들과 실장님, 처장님까지 지금까지 만난 모든 분이 다들 좋은 분들이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욱 저를 같고 닮아서 동료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정이 많고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는 너는 '다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앞으로 이름에 어울리게 더 잘해야겠죠.
- 박다정 수요효율저 효율사업실 대리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i am

20
24
08
august
vol.614

거 친 파 도 를 넘 어

O V E R C O M E

미 래 의 바 다 를

항 해 하 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저 너머를 향해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here i am, i am KEPCO

맑은 바람으로 돛을 가득 채우고
밤하늘의 별을 나침반 삼는 우리의 항해는
마침내 우리만의 미래에 닿을 것입니다.

i am



통권 614호 2024년 8월호(월간)
등록번호 나주 마00003
발행일 2024년 8월 10일
발행인 김동철
편집인 백수현
편집 한국전력공사 홍보처 (061)345-3121, 5
주소 (우)58222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기획·디자인 큐라인
인쇄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창간일 1961년 8월 31일

4	ESSENTIAL KEPCO
	항해자, 그 거친 파도를 넘어서
10	TIMELINE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혁신의 신발끈 동여맬 때”
12	LIGHT 1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과 대응
16	LIGHT 2
	일-학습 밸런스로 인적자원을 업그레이드하다

20	ZOOM IN
	MZ세대가 회사에게 광주전남본부 주니어보드
22	SITE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설치 현장을 가다
26	GREENSIGHT
	나를 위한 마음에 ‘반짝’ 빛 들어오는 시간
30	VIEW
	풍요롭게 저무는 황금빛 태양이 지평선에 이마를 맞대는 순간

32	MIND&U
	원영적 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긍정적 사고
34	CURATION
	내 힐링을 책임져줄 달콤한 디저트
36	TALK
	빛의 시인을 통해 보는 우리의 찰나
40	K-CREATOR
	테린이의 좌충우돌 성장기 재무처 박은경 대리

42	MAGAZINE P
	무수한 이야기를 품은 바다의 맛 기장&기장지사
44	KEEPER
	한낮의 태양처럼 뜨겁게 수요효율처 박다정 대리
46	人STARGRAM
48	NEWS
50	ON KEPCO

항해자,
航海

그 거친
파도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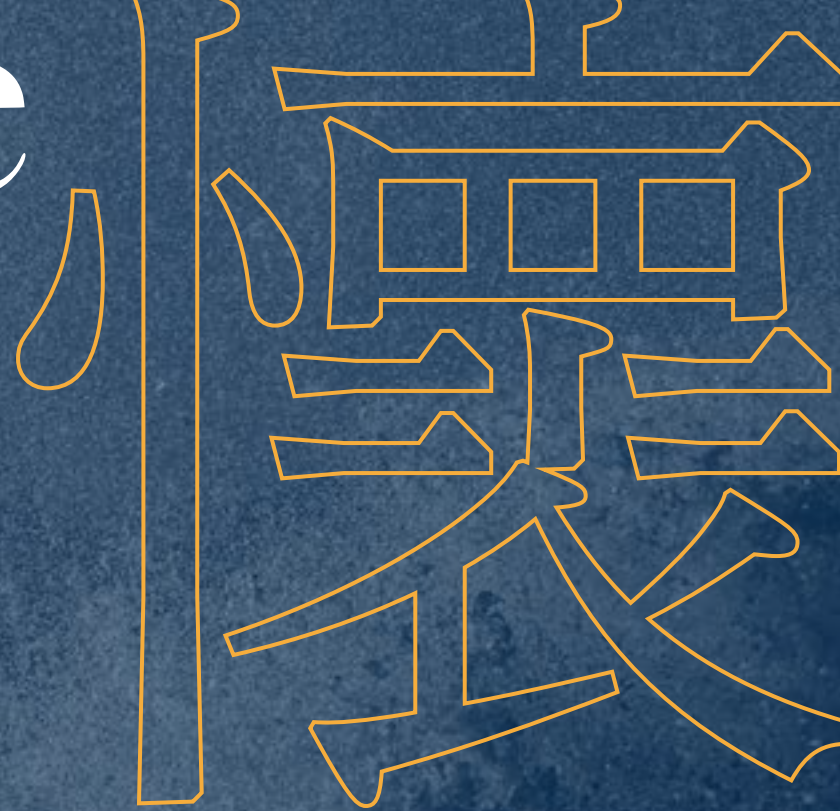
‘미래’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우리. 격변의 시대는 거대한 파도처럼 덮쳐 옵니다. 이 항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급변하는 에너지 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자와 같습니다.

때론 이 항해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잔잔한 바다에서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시련이 우리를 성장시키듯, 거친 파도 역시 우리의 항해를 더욱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Go over
the wave

航海

Embrace



폭풍우 치는 바다,
서로밖에 믿을 수 없는 그들

언젠가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았던 베링해의 대
게잡이 선원들에 대한 영상을 찾다가 5분짜리 요약본을 본 적
있다. 베링해는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매우 추운 해역이다.
거대한 배가 마치 나뭇잎처럼 떠올랐다가 고꾸라지고, 흰 이를
드러낸 삼각파도가 갑판을 부술 듯이 배를 후려치는 폭풍우 속
에서 선원들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 원치에 감긴 강철 와이어
에 대게가 가득 찬 거대한 통발을 묶어 끌어 올렸다. 이를 보면
1920년대에 일본에서 쓰인 코바야 시 타끼지의 소설 <게 가공
선>이 절로 떠오른다.

바람이 돛대에 부딪혀서 불길한 소리로 울어댔다. 대
갈못이 헐거워지길라도 하는 듯 끼익끼익하며 배 어딘
가가 끊임없이 삐걱거렸다. 소오야 해협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3,000톤 가까운 배가 딸꼭질이라도 하듯 출렁,
출렁하기 시작했다. 뭔가가 굉장한 힘으로 훌쩍 들어
올린다. 배가 한순간 허공에 뜬다. 그러고는 덜렁, 제자
리로 내려앉는다.

이 소설은 바다에서 한 폰이라도 벌어들 요량으로 광부로 농부
로 일하다 가난을 피해 흘러들어온 잡부, 막노동꾼, 가난뱅이,
빈민굴 출신 소년들, 떠돌이, 술꾼 등이 목숨을 위협하는 폭풍
우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점차 서로를 동료로 인식하게 되
고 힘을 합쳐 삶을 개척해 나아간다는 이야기를 품고 있다. 누
구 하나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위해 함께 싸워야 모두
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 같은 바다 위에서 한두 명의 돈보
이는 주인공이랄 것도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자 모두가 중역인
곳이 바로 ‘게 가공선’이다.

한순간 파도에 휩쓸리면 북해 얼음 바다에 흔적도 없이 수장되
고 마는 폭풍우 치는 바다 위, 게 가공선에서 동료들과 자신 말
고는 믿을 곳 없는 인부들은 그물코처럼 엮어내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냉혹한 자연의 힘에도, 처참한 현실의 고통에도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당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청새치는 무엇인가?

“그의 모든 것이 늙어 보였으나, 두 눈만은 예외였다. 그의 눈은
바다와 똑같은 색으로 생기가 가득했으며 불패의 기색이 감돌
았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한 구절이다. 인
간의 의지와 투쟁을 그려낸 이 작품에는 청새치를 잡기 위해
목숨 걸고 청새치와 싸운 노인이 있다. 먼바다에서 살아생전
처음 보는 크기의 청새치를 낚은 노인은 배가 거꾸로 뒤집힐 듯
휘몰아치는 거친 파도와 상어떼로부터 청새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항구로 돌아간다. 그 과정은 고난과 역경뿐이다.
평생의 마지막 순간에 잡은 거대한 물고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노인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

<노인과 바다>에서 청새치는 우리 모두가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고 싶은 무언가다. 노
인의 항해는 그 청새치를 지키기 위한 항해였고, 우리 역시 청
새치를 지키기 위한 항해를 하고 있다. 소설은 독자에게 묻는
다. ‘당신의 나이가 몇이든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어
떤 역경에서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가?’

저마다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이들이 많은 터다. 상황이,
마음이 어려움에 처해 잠들지 못하는 이들에게 장을 펼쳐 <게
가공선> 인부들이 어떻게 당당히 자신들의 운명에 맞섰는지,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 어떤 마음으로 바다와 싸웠는지 떠올
려 봤으면 한다. 거기 우뚝 멈춰 섰지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
음의 북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 걸음을 떼어보길 바란다.



바다를
품은
懷
항해

우리의 항해를 위해 뜻을 펼쳐라

제시형 대리(이하 제) 항해사님은 어떻게 항해사 일을 하시게 된 건가요?

황희상 항해사(이하 황) 아버지가 배를 타시는 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항해사를 권유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랄 것은 없지만 현재 제 일에 매우 만족하며 다니고 있어요.

박지명 대리(이하 박) 어떤 배를 몰고 계신가요?

황 철강을 실어 호주와 브라질에 나르고 있습니다. 한번 실는데 30만 톤 무게거든요. 그래서 잘못 실으면 배가 부서져요. 일등항해사인 저는 화물이 실릴 때 안전하게 실릴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확인하는, 안전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제 배가 출항하면 몇 달은 바다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힘든 부분은 없으실까요?

황 아무래도 외로움이 가장 큰 장애물이죠. 하지만 이를 이겨내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운동이나 취미 생활로 외로움을 달랠니다. 인스타그램(인스타 웹툰)을 하게 된 계기도 그중 하나였어요.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줄 아는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항해와 표류가 있는데, 표류는 그저 떠다니는 것을 의미하고 항해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나갈 때를 의미한다고 해요. 입사 4년 차를 맞

우리 모두 저마다의 뜻을 펼친 채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 인생이 언제나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을까. 입사 4년 차 경남본부 전력사업처 제시형 대리와 경남본부 지역관리처 박지명 대리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다. 외로운 바다 위에서 몇 달을 보내며 그 외로움을 극복해 나갔던 황희상 일등항해사는

이해서 여러분은 항해하고 계신가요? 표류하고 계신가요?

박 표류요. 신입일 때는 열정적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찬 기대감도 있었고, 또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던 말이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항해했는데, 지금은 회사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됐을뿐더러 고참도 아니고 신입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표류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 항해사님은 어떠세요?

황 저는 항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는 아직 없지만, 지금처럼 한국에 들어와 있을 때 인스타툰을 업로드하는 등 취미생활을 하는 삶이 무척 행복해요. 인스타툰도 항해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현재 꽤 반응이 좋은 편이죠. 또, 삼등항해사에서 일등항해사가 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고요.

박 항해사로서 잊지 못할 풍경도 있을 것 같아요.

황 당연히 있죠. 배 갑판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돌고래는 배를 따라다니면서 헤엄치는 것을 무척 좋아하고, 향유고래 등 큰 고래도 본 적 있어요. 물론 물 위에 잠깐 모습을 드러낸 정도였지만요. 다른 직업을 택했다면 볼 수 없는 광경들이겠죠. 그게 항해의 매력이고요.

박 한전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업무의 다양성이 무척 많아서 평생 한전에서

그런 의미로 좋은 조력자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외로운 길을 택했기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봤다”고. 인생의 바다에서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황희상 일등항해사와 한전인의 항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매년 새로운 업무를 마주칠 수 있어요.

제 항해사님의 항해가 방향을 틀었던 순간, 즉 터닝포인트는 언제였나요?

황 온더더씨(인스타툰)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인 것 같아요. 25살 때 시작했는데, 저를 굉장히 열심히 살게 해준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어요. 온더더씨 이후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됐고, 마인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제 저는 원래 선생님이 되려고 사범대를 다녔는데요. 보통 사범대 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대외활동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대외활동에 적극적이었어요. 해외 봉사 활동도 다녀보고 서포터즈 활동이나 어학연수도 다녀왔죠. 그러면서 세상의 건물이 넓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박 저는 취업이요. 취업을 빨리한 데다 한전이 첫 회사여서 이전에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님들을 대하는 것도 어렵고 실수할까 전전긍긍했는데, 많은 분께서 저를 좋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빨리 조직생활에 녹아들 수 있었어요.

소란스럽게 비가 내렸지만, 이들 주변으로는 초여름의 풋내가 가득했다. 인생이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 이들은 비단 이셋뿐만이 아닐 터다. 당신은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표류하고 있는가? 표류하고 있다면, 지금 뱃머리를 돌려야 할 타이밍은 아닐까? 잠잠한 바다에서 배는 나아갈 수 없다. 거센 파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좌측부터 제시형 대리, 박지명 대리, 황희상 일등항해사.



황희상 일등항해사.



해양대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항해사의 길로 뛰어들었다. 현재 5년 차로, 삼등항해사를 거쳐 일등항해사로 활발히 활약 중이다. 항해사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웹툰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팔로워 수가 4만 6천 명에 달한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onthethe_sea다.



제시형 대리, 박지명 대리.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혁신의 신발끈 동여맬 때”

기업체질 개선 거듭 강조 전사 혁신 워크숍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한전 인재개발원에서 80여 명의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CEO 모두발언, 다짐대회, 전문가 특강, 3개 세션 및 조별토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위기 극복의 핵심인 공기업 마인드 타파 기업 체질의 근본적 쇄신 주인의식·자공심 내재화를 위해 마련됐다.

1일차 다짐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글로벌 에너지리더’로의 도약을 위한 ①재무건전성 개선, ②전력망 적기 건설을 통한 안정적 전력공급, ③신성장 동력창출, ④규제혁파 및 경영효율 극대화, ⑤고객중심 서비스 제공 등 5대 핵심사항 실천의지를 재확인했다.

모두발언에서 김동철 사장은 “현장에 나가 직원들과 소통할 때마다 ‘주인의식’과 ‘에너지보국(報國)’을 항상 강조해왔다”라면서 “한전 본연 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에너지신사업을 통해 전기판매 이외의 새로운 수익원을 국내외에서 적극 발굴하고,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멀리까지 내다보아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이다”라면서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혁신의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자”고 당부했다.

세션Ⅰ에서는 상반기 점검 및 하반기 계획이 발표되었고, 세션Ⅱ에서는 신사업 비즈모델 수립(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우수 재무개선 과제 등 한전의 주요 현안을 심도 깊게 토론했다. 이날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조별 토론시간에는 한전의 근본적 변화와 기업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인 13일 세션Ⅲ에서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 국내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후생과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여 고객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됐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동철 사장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이 주인이라는 사명감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집요하게 끝까지 시정하고 설득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회사의 주인은 20년, 30년, 일을 할 여러분들이 진정한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시대 전력망 확충과 자원 마련방안 논의 전문가 참여 혁신 대토론회

한전은 7월 24일 남서울본부에서 김동철 사장,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 등 약 100여 명의 전력망 관련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및 패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대규모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정부·학계·산업계가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과 김한규 의원은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국회, 정부,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동철 사장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확대와 빨라지는 전기화로 인해 전력망 투자 비용은 기존 10차 설비계획 시 산출했던 56.5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혁신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

의 현재 여건상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본격적인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3건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의 순으로 진행했고, 청중들의 참여 속에서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 대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혁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김동철 사장은 “탄소중립 실천, 안정적 전력공급, 국가 미래 성장 기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국가기간 망 신속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곱씹어 보았다”라고 밝히며, “향후 50여 년간 미래 먹거리가 될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첨단산업이 모두 전력산업 기반 위에 존재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전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도출된 실천 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환류를 통해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여름철 전력수급 현황과 대응

지난 6월 24일부터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 시작되었다.
올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다.
전력수급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전력수요의 예측 방법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대응을 위해 전력수요 예측은 필수적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주간 수요예측을 매일 시행하며, 전력수급 상황을 파악한다. 실제 수요보다 수요예측량이 많으면 전력구입비가 증가하고, 과다 운전 등으로 설비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반대로 실제 수요보다 예측량이 적으면 예비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전력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전력사용이 많은 계절인 여름·겨울철이 다가오면 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름·겨울철 전력수요 전망을 시행하고 전력수급 대응계획을 사전에 세운다. 전력수요 예측은 기온, 기상요인, GDP, 산업체 조업량, 과거 전기사용 패턴 등 주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정한다.

2024년 여름철 전력수요 전망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철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 또한 많을 확률이 높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우, 폭염과 같은 이상 기상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는 열돔현상으로 인해 기온이 56℃까지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상이변은 세계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 전망한 올 여름철 최대전력은 작년 여름(93.6GW)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산업계 휴가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 차 평일에는 92.3~97.2GW 수준으로 예측된다. 만일, 폭염 발생 등으로 여름철 피크가 최대 예측전망 97.2GW를 시험하더라도 예비력은 전력수급 비상단계 기준(4.5GW) 이상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상고온, 발전기 불시고장, 재생에너지 불확실성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예비력 하락으로 전력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4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단위:GW)

구 분	전년도 여름철 (2023.8.7(월)17시)	금년도 전망 (8월 둘째 주)	전년 대비
공급능력	104.3	104.2	△0.1
최대전력	93.6	92.3 ~ 97.2	△1.3 ~ 3.6
예비력	10.7	7.0 ~ 11.9	△3.7 ~ 1.2
예비율(%)	11.4	7.2 ~ 12.9	△4.2 ~ 1.5

※ 역대 피크: 2022.12.23(금) 11시 94,509MW[예비력(을): 11,119MW(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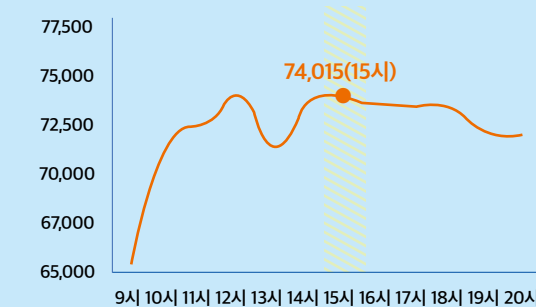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 패턴

경제성장, 냉방기기 보급 등으로 전력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름철 최대전력도 상승하고 있다. 작년 여름철에는 최대전력을 경신했고, 올해도 기상 영향에 따라 최대전력을 경신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대전력 발생 시간은 과거와 달리 기온이 가장 높은 15시경이 아닌 17시경에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전력계통에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과 같은 비계량 태양광 발전량을 실시간으로 산정하지 못하고, 발전전력량은 전력수요에서 상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총 전력사용량은 17시경보다 15시경이 더 많지만, 15시경에는 비계량 태양광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차감하여 최대전력이 17시경보다 낮게 형성된 것이다. 태양광 발전이 적었던 과거에는 여름철 최대전력 발생일이 기온이 높은 날에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날씨가 흐린 날에 비계량 태양광 발전량이 적어져서 최대전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13년 전력수요 패턴

(단위: MW)

— 시장수요(=총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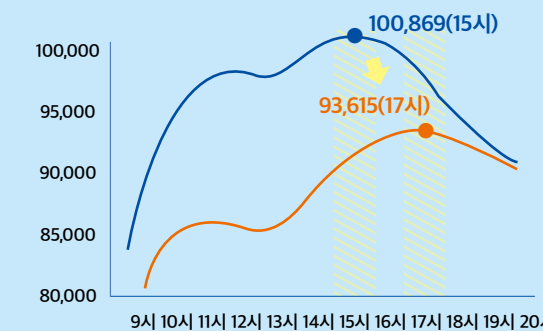


비계량 태양광 설비가 적어
총 수요와 시장수요는 동일함

2023년 전력수요 패턴

(단위: MW)

— 총 수요 — 시장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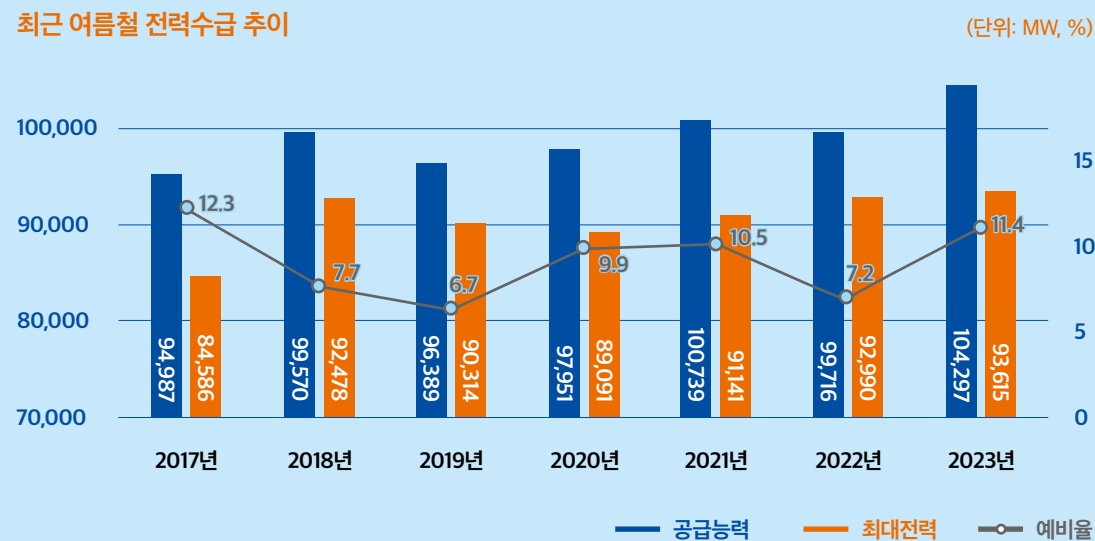
비계량 태양광으로 인하여 총 수요 대비
시장수요 피크에서 약 7GW 수요차감 효과 발생



여름철 최대전력 발생 실적 비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21년	2022년	2023년
최대전력(GW)	74.3	74.0	76.0	91.1	93.0	93.6
발생 시간	15시	15시	15시	18시	17시	17시

최근 여름철 전력수급 추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정부에서는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했으며, 전력수급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전력수급 상황이 올해 적정 공급예비력으로 판단하는 10.9GW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한전과 관련 기관은 단계적으로 추가예비력 자원을 활용하여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한전의 추가예비력 1.6GW와 긴급 부하조정은 감축시험 등 사전점검을 6월에 완료했고, 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전력수급비상훈련」을 지난 6월 25일 실시해 추가예비력 자원의 가동과 대국민-언론-관련 기관 상황전파체계를 점검했다.

공공기관은 전력수급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 시간대(16시 30분~17시 30분)에 냉방기를 순차운휴(30분씩 정지)하고, 예비력이 5.5GW 미만인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예고했다.

※ 전력수급 현황 기본용어

- 최대전력: 1시간 사용량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하루 24시간 전력수요 중 가장 큰 값 (순간 피크는 전력수요보다 높음).
- 설비예비력 = 발전설비전체 - 최대수요
- 공급예비력 = 공급능력(미가동 발전기 제외, 재생에너지이용률 반영) - 최대수요
- 운영예비력 = 공급예비력 중에서 30 이내 발전이 가능한 발전량의 합

전력수급 비상발령체계와 추가예비력 자원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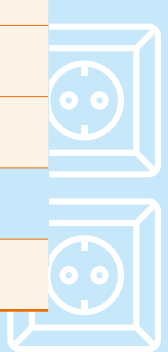
전력수급 비상(경보)은 운영예비력이 4.5GW 미만으로 하락할 때부터 발령한다.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예상되면 비상단계는 아니지만 ‘준비단계’를 운영하며 전력수급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운영예비력 수준에 따라서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단계로 구분하여 추가예비력 자원 운영, 대국민 홍보, 전력설비 고장 대비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한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은 올 여름철 추가예비력 자원으로 7.2GW를 확보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감축용량이 약 4.6GW로 가장 큰 수요자원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의무감축DR이다. 이것은 수요자원사업자가 고객들과 약정을 체결하여 DR(Demand Response)자원을 구성하고,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 의무감축DR은 전력수급 비상 이전 공급예비력이 6.5GW로 예상될 시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에서는 추가예비력 자원으로 변압기 전압 하향조정, 냉방기 원격제어, 긴급절전 수요조정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변압기 전압 하향조정은 154kV 2차측 변압기 탭을 조정하여 고객 측 전압을 허용범위 내에서 낮춰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냉방기 원격제어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시스템을 설치한 고객의 냉방 부하를 한전이 원격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긴급절전 수요조정은 사전에 한전과 약정한 고객이 자율적으로 부하를 감축하고 지원금을 받는 제도인데, 지난 6월 26일 감축 테스트를 실제 시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운영예비력이 1.5GW로 떨어지는 전력수급비상 심각단계에서는 긴급 부하조정(부하차단)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블랙아웃’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순환단전’을 시행하는 것이다. 부하차단 대상을 500MW 단위로 그룹을 구분하여, 1회 1시간씩 순환하면서 부하를 차단한다. 2001년 9월 15일 시행했던 순환단전은 우리나라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추가예비력 자원 운영[한전,KPX,발전사 등 7.2GW(한전 1.6GW)]

수급경보		예비력	예비자원	자원량(MW)	
수 급 비 상 이 전	10.9GW 예상 시	■ 피크수요DR	[전력거래소]	+α	
	7.5GW 예상 시	■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발전사]	341	
	6.5GW 예상 시	■ 의무감축DR	[전력거래소]	4,629-α	
	5.5GW 예상 시	■ 변압기 전압 하향조정	[한전]	930	
준비	관심	5.5GW ^{미만} ~3.5GW	■ 냉난방기 원격제어	[한전]	50
주의	경계	3.5GW ^{미만} ~1.5GW	■ 긴급절전 수요조정	[한전]	650
			■ 석탄발전 최대보증출력	[발전사]	577
심각		1.5GW ^{미만}	■ 긴급부하조정(부하차단)	[한전]	31,677



일-학습 밸런스로 인적자원을 업그레이드 하다



MZ세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은 이미 과거의 단어가 됐다. 이제는 일과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워러벨(Work & Learning Balance)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한전은 구성원의 업무와 성장 모두를 놓치지 않는 워러벨을 추구하며,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공기업 최초로 미국 인재개발협회인 ATD(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에서 '2024 BEST HRD AWARD'를 수상했다. 한전이 그리는 인재육성에 대해 알아본다.



일과 학습의 균형 Work & Learning Balance



'70:20:10 모델' 통한 새로운 리더십 구축



현업 문제해결을 위한 '축적의 시간'

한전의 인재상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멀티 스페셜리스트를 넘어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통섭형 인재' 회사에 대한 무한책임 의식으로 개인보다는 회사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가형 인재' 날카로운 통찰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해 내는 '가치창조형 인재' 뜨거운 열정과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감행하는 '도전적 인재'다.

이러한 인재상으로 구성원을 성장시키기 위해 특히 중요시하는 부분은 '일과 학습의 균형'이다. 한전에는 사무, 배전, 송변전, 기타 직군 등 다양한 직무와 직군이 존재하는데, 일반 사무직 이외의 직무의 경우, 실습을 통한 교육과 이를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전 인재육성부에서는 '학습 참여=업무 공백'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해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와 학습을 함께 실행하는 다양한 교육제도를 마련했다.

팬데믹 이후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한전에서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위기 돌파 원격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중간관리자 이상의 고위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십 러닝저니 과정'을 신설했다. 특히 학습의 70%는 업무 경험을 통해, 20%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10%는 교육을 통해 일어난다는 '70:20:10 모델'을 적용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리더십 솔루션을 개발했다. '전략적 사고 및 전략실행' '위기대응 및 학습 민첩성' '이해관계 조정 및 대내외 협력'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현업 퀘스트를 진행해 일터에서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한전이 워크 앤 러닝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진행하는 대표적인 학습제도는 현업 문제해결 및 직무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 설계형 '축적의 시간'이다. 축적의 시간은 '축적의 8H'와 '축적의 그리드'로 나뉘는데, 이 중 축적의 8H는 주 최대 8시간을 학습의 시간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학습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축적의 시간 채널을 통해 전사에 학습 참여율을 공개하며, 학습 참여가 업무 공백을 만드는 것이 아닌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때 학습 주제는 업무 현장에서 당면하는 직무 관련 현안으로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했으며, 구성원은 상호 토론을 통한 공동 학습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724개의 학습활동이 진행됐고, 지식재산권 2건 획득, 신기술 및 공법 개발 12건 등의 높은 학습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축적의 그리드는 이러한 축적의 8H를 통한 학습활동을 전사에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서로의 학습을 열람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등 학습의 결과를 개인의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사적인 학습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디지털 에듀테크 시대의 도입

최근 5년간 한전에 입사한 직원이 전체의 31%를 차지하며, MZ세대의 비중은 50%를 훌쩍 넘은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신입사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으로 '디지털 에듀테크'를 도입, 태블릿을 이용한 페이퍼리스 수업을 진행해 교육 효과를 제고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교육생들 간 소통과 학습결과물 공유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했고, 마이크로 러닝을 접목시켜 쏫폼 혹은 15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통한 교육을 도입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마인드셋을 구성원에게 배양하기 위해 기초 교육을 전 직원에게 시행했으며, 리더 계층에게 디지털 분야의 저명한 강사를 통해 빅데이터, 챗GPT와 관련한 특강을 꾸준히 시행해 디지털 전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를 통해 고객의 전력사용량 빅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기반으로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시스템과 AI 기반의 자연어 분석을 통한 인재 추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디지털 에듀테크 시대에 맞춰, 한전에서는 역량 수준을 시각적인 엠블럼으로 회사가 공식 인증하는 '디지털 배지'를 수여한다. 입사 이후 수행한 직무, 교육, 자격증을 데이터화시켜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직무, 공통, 리더십 등의 분야별 디지털 배지를 수여하고, 구성원들이 교육 과정에서 성취한 역량을 챌린지 형태로 쌓아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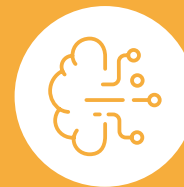


인재육성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 간의 연계

기업이 구성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인재육성 전략'과 '비즈니스 전략'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두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사에 학습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 전략 및 사업 목표가 세워지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수요'를 발굴한다.

현재 전사가 가진 역량을 분석하고, 경영 현안에 필요한 아젠다와 연계시킨 교육 전략과제를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후 C레벨 전원에게 해당 내용을 공유해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구성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전사에 공유하고 간담회를 실시하며, 구성원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 영상'을 제작해 쏫폼 형태로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 이후 한전 인재개발원을 통해 필수 직무교육과 선택 교육을 마련해 교육을 시행하고, 희망 사업소별로 자체적인 직무교육도 시행할 수 있다. 또 정해진 교육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자율 설계 과정'을 통해서 인재육성 전략과 부합하는 사외 세미나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주도성을 부여한다.



자율적인 경력개발경로(CDP) 설계

한전의 특성상 처음 입사 후 퇴사 없이 커리어를 개발해 가는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하기에, 한전 인재육성부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경력개발경로를 설계해 학습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성원들은 현재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연관된 권장 직무와 경로, 이동 가능 경로 등을 탐색,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습 경로를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리스킬링(Re-skilling)' 제도를 실시하는데, 커리어를 그려가면서 현재 본인의 직무, 직군과 무관한 리스킬링이 가능하며, 특히 전문인력을 양성함에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은 타 직군의 사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 직군으로 교차 승진하거나 보직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망 공급과 관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망의 분산화로,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사업 분야에 대한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실감했고, 이에 따라 신사업으로 리스킬링을 원하는 직원들을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또한 신성장 에너지 사업 관련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간 500명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이들을 전문인력 풀로 관리해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AI를 활용한 인재 추천 시스템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와 함께 HR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이슈되면서, 한전이 사용 중인 'AI 인재 추천 시스템'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는 AI를 기반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한전이 일찍이 HR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을 깨닫고 개발하기 시작했기에 거둔 성과였다. 이들은 HR 애널리틱스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회사 내의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와의 협업을 시작했으며, 이미 축적된 채용 관련 데이터 약 35만 건에 대한 딥러닝을 거쳐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결과적으로 3일 이상 소요되던 서류전형을 단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AI 기반 머신러닝을 활용해 AI를 채용뿐만 아니라 평가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상사, 부하, 동료 등이 구성원을 평가하는 '360도 다면평가' 시 사용됐던 320만 개의 문장 데이터를 활용해 문맥을 고려한 긍정, 부정, 중립의 감정 분류를 보다 세밀하게 해 보다 구체적으로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테면 '노력하고 있습니다(긍정)'와 '노력이 필요합니다(부정)'라는 두 문장이 있을 때, 모두 '노력'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는 긍정적으로,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활용됨을 알 수 있게 했다. 따라서 더욱 정확한 피드백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AI에 대한 노력 덕분에 최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AI 학습을 통해 서술형 평가에 대한 감정을 분류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관련된 기술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AI가 사람보다 뛰어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지만, AI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향상됨에 따라 우리가 HR 분야에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HR 분야에서도 AI와 인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에 한전의 성공 경험과 기술 역량이 그러한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MZ세대가 회사에게

광주전남본부 주니어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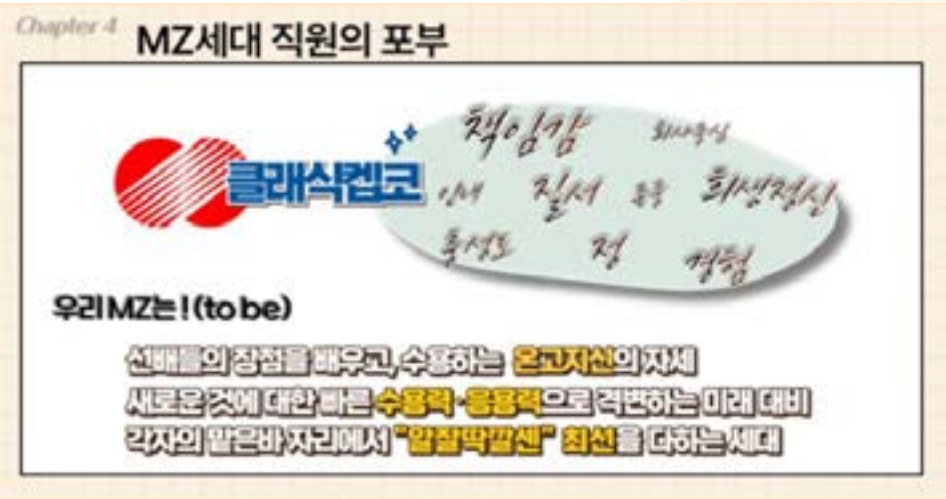
7월 12일 열린 전사 혁신 워크숍에서 제5기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를 대표해 'MZ세대 직원이 회사에 바라는 점'을 발표했다. 낭랑한 목소리로 발표는 물론 연기력까지 과시하며 임팩트 있는 PPT로 청중들의 오감을 사로잡았다. 또한 사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결과를 도출해 생생한 사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감되는 내용과 제안으로 감동까지 이끌어 낸 발표였다.



전사혁신워크숍에서 최종 발표를 한 광주전남본부 주니어보드 혁신원정대의 발표 내용이 반향을 일으켰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MZ, 인수인계 체계 미흡이 가장 힘들어

광주전남본부 주니어보드는 MZ세대 직원이 회사에 바라는 점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MZ세대 직원 900명에 전사 주니어보드 200명을 합해 총 1,100명의 MZ세대 직원에게 3일간 KEPCO-EP와 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첫 번째 질문은 “입사 후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우리 회사의 기업문화는?”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인수인계 체계 미흡이 36.9%나 차지해 1위에 올랐다. 발령과 동시에 전임자는 가고 없고, 일단 부딪히며 배워야 하는 업무환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가장 해결이 시급한 우리 회사만의 문제점으로는 자꾸만 줄어드는 우리 회사 복지혜택, 열악해진 근무환경으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가 44.7%나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한편 승진에 대해서도 MZ세대다운 날카로운 응답들이 이어졌다. 승진을 희망하는지 물었는데 ‘안 한다’와 ‘잘 모르겠다’가 무려 81%를 차지했다. 승진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승진하면 본사 근무를 해야 해 워라밸이 위협받으며, 직원에 비해 이동 주기가 짧고, 자리가 한정되어 선호 사업소로의 전입이 어렵다는 인사이동 불안정성을 주요 기피요소로 꼽았다. 이에 대해 삶의 많은 것을 희생하는 만큼 충분한 급여 인상과 이동 안정성 등 실효성 있는 승진 유인책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끝으로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으로 40%의 사우가 회사의 정책과 사업 관련해 정부에 할 말은 하는 대변인 역할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에 힘쓰는 홍보맨, 직원들이 스스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포터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MZ세대 직원이 바라본 30년 뒤 한전의 모습”으로는 “모 공기업처럼 알짜사업은 민간에 넘어가고 오지에 설비 유지관리만 하는 만년 적자기업이 될 듯” “20대, 30대 줄줄이 퇴사하는 한전” 등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해 공정가격을 보장받는 한국전력” “위기를 극복하고 90년대의 영광을 되찾은 대한민국 유일의 글로벌 에너지 리더” 등 긍정적인 전망도 눈에 띄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큰 반향을 일으킨 광주전남본부 주니어보드의 발표자료.



왼쪽부터 발표자 광양지사 김용찬 사우, PPT 편집과 디렉팅 광주전남본부 김다빈 대리, 발표자 여수지사 이화은 사우.

온 세대가 함께 만드는 KEPCO라는 나무

이들은 ‘기성세대’를 시대의 무거운 책임감을 온전히 감내하고 희생하여, 단단한 경험치가 쌓인 세대라는 의미로 ‘클래식캅코’로 명명했다. 아울러 MZ세대들이 선배들의 문화와 장점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온고지신의 자세를 갖추는 것도 큰 숙제라며 각자 맡은 바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알잘딱깔센) 최선을 다하는 세대가 되어 50년 후를 이끌어갈 대비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는 세대, 직급, 남녀, 직군으로 편 가르며 서로를 너무 다르게 느낍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모두 ‘한국 전력공사’라는 하나의 나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대, 직급, 남녀, 직군을 떠나 한전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로 이어지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노력하여 현재의 재무위기를 이겨내고, 급변하는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라는 희망적인 멘트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광주전남본부 주니어보드는?

회사 기업문화를 소재로 한 ‘빛대리’ 영상을 노사협력처와 협업해 제작했고 직급, 직군 간의 소통, 회사의 미래에 대한 내용을 라디오 형식으로 풀어낸 ‘보이는 라디오’, 친해지고 싶은 직원의 이름으로 3행시를 짓는 ‘삼행시챌린지’, 유연근무 알짜정보 기업문화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United by

재난안전통신망(PS-LTE) 설치 현장을 가다

지하전력구에서 작업할 때 외부 기관들과 통신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을 기존 통신망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추진해 비용도 절감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이들이 있다. 한전 ICT운영처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 전환기술이 시범 설치된 논현변전소 현장에서 이들을 만나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다.



WiFi방식 비상통신망에 대해 신입사원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옥상에 설치된 PS-LTE 송수신기.



Responsibility

재난·재해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 하는 통신망

에너지를 품은 거대한 코일이 양옆으로 펼쳐진 길. 수 킬로미터에서 길게는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길은 마천루가 빼곡한 도심의 수십 미터 땅속에 난 전력구다. 폐쇄된 공간이지만, 전력공급을 위해 중요한 설비들이 지나가기에 담당자들은 반드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 이곳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화재나 사고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통신망이다. 전력구 내에서는 일반 핸드폰 통화가 불가능하기에 비상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소방, 의료 등 기관 간 연락을 할 수 있는 국가적으로 일원화된 통신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PS-LTE 무선망은 정부(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를 위해 구축한 무선망이다. 한전은 재난안전 관련 8대 기관 중 하나로서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안전통신망법 등에 근거해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대를 위해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지하전력구 내에 PS-LTE 방식으로 비상통신망을 구축하려면 51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한전 ICT운영처 네트워크부는 기존에 구축된 WIFI방식 인프라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해 483억 원을 절감하였다. 여기에 WIFI방식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PS-LTE단말기를 활용해 5.5억 원을 절감한 것을 더하면 약 488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기존 인프라 활용해 488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 거둬

지하전력구 통신망식은 1998년도부터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 Trunked Radio System) 방식으로 구축이 시작됐으나, 국가망인 TRS 구축 확대 사업이 중단되면서 한전은 자구책으로 전력구 비상통신 방식을 WIFI 방식으로 채택해 2017년부터 구축했다.

WIFI 방식 비상통신망은 전력구 내에서 WIFI용 AP(Access Point, WIFI 모델)를 통해 WIFI 전용 단말기로 한전 내부 직원과 사선번호로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이다.

기존 지하전력구 설비 내 비상통신의 통신방식은 WIFI 방식인데 이는 지하전력구 내에서 다른 기관과 통신할 수 없기에 국가재난통신망과 WIFI 단말기를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도 컸다. 전력구를 점검하러 갈 때 지상에서는 PS-LTE 단말기를, 지하에

서는 WIFI 단말기를 각각 사용하기에 두 개의 단말기를 들고 다녀야 했던 것.

이들은 변전소 옥상에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혼재되어 있던 비상통신 방식을 단일화하여 PS-LTE만 활용해 작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담당자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WIFI 방식의 단말기는 전력구 내에서 외부와 소통할 수 없고 한전 내부적으로만 소통할 수 있기에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 경찰, 의료 등 관련기관과 통신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 구축을 통해 한전 직원만 통신할 수 있었던 체계에서 정부,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련기관들과 동시 다중통신이 가능한 수평적 통신 체계로 전환하여 재난·재해 현장에서 본사와 지역본부 재난관리부서까지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PS-LTE 통신망의 기본 보안정책은 WIFI 허용이 안 됐다. 2022년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 승인을 얻었고, 지속적으로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과를 방문하여 담당 사무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WIFI 통신방식 사용을 허가받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행안부 주관의 기술적합성 검증 절차인 1차 테스트와 2차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관련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기술적합성 검증을 완료하고, PS-LTE 망에 접속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은 지하터널 통신용으로 지상에 설치한 국내 최초의 PS-LTE용 송수신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고, PS-LTE 망의 700MHz의 무선신호를 송수신하여 WIFI의 2.4GHz로 변환하여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설비임을 입증했다.



전력구 비상통신망 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신현조 네트워크부장.



전력통신망 점검을 위해 모인 ICT운영처 네트워크부 직원들.

사명감으로 함께 도전한다

사실 WIFI 방식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보안문제 등으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기에 시도를 하기 어려웠다. ICT운영처 네트워크부는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도전한 끝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뤄냈다.

이 사업을 확대해 적용하기에 앞서 우선 남서울본부 관내 2개 변전소에 본 설비를 시범 설치해 3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현재 WIFI 방식 지하전력구는 322개소이며 앞으로 3년간 전력구 내 통신망을 재난안전통신망 방식으로 100% 구축하는 한편, 통신망이 없는 전력구에서도 전력구를 설치하여 전력구 비상통신망이 100%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담당자인 저마저도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속적으로 정부세종청사를 드나들며 정부 담당자를 만나 끈질기게 설득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정영주 차장은 뿌듯하게 이야기한다.

“ICT운영처 네트워크부는 전국OPGW와 광케이블, 광전송

장치 등 초고속 전력통신망과 TRS 기지국 등 자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신경망과 같은 통신 인프라를 9명의 인원이 관리하다 보니 설비 신증설과 교체 기획, 절차서 제·개정, 장애 대응 등 업무량이 많아 고생하지만 직원 각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때 자랑스롭습니다.” 신현조 부장은 부서에 대한 자랑을 내비친다.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적합성 검증을 통해 기존 WIFI 방식의 비상통신망을 PS-LTE 망과 연계함으로써 기존 설비를 이용할 수 있어 투자비 절감이라는 성과도 달성할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라고 팀원들은 소회를 이야기한다.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통신망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회사가 어려울 때 보탬이 되겠다는 주인의식으로 하나 되어 일하는 ICT운영처 네트워크부는 오늘도 또 다른 결실을 위해 현장을 향한다.

나를 위한 마음에 ‘반짝’ 빛 들어오는 시간

본사 사우들의 CD 케이스 무드등 만들기

많은 이들이 행복은 로또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의외의 곳에서 행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 속 온몸을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시원한 수박이 그렇고, 우박처럼 비가 쏟아진 후 우연찮게 올라다본 하늘에 쌍무지개가 떠 있을 때가 그렇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행복이 모여 우리를 이루는 삶이 된다. 본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박세진 대리, ICT운영처 길대영 대리, 요금전략처 이정민 대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이지민 대리, 해외원전개발처 오상희 대리는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을 빛내줄 CD 케이스 무드등을 만들며 작은 행복 하나를 만들었다.



CD 케이스,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다?

이제는 추억의 소품으로 자리 잡게 된 CD. 최근 K-팝의 위상이 뜨거워지면서 CD를 찾는 전 세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CD의 본 목적인 음악 감상을 위한 구매가 아니라 앨범 안에 들어 있는 굿즈를 수집하기 위함이 높다는 것. 실제로 2023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D 소비자의 52.7%가 굿즈 수집을 목적으로 음반을 구매한 적이 있고, CD로 음악 감상을 하는 소비자는 5.7%에 불과하다. 문제는 CD, CD 케이스 등이 대부분이 분리배출이 안 되는 혼합 플라스틱이라는 점이다.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이 아니라 PP(폴리프로필렌)를 포함한 혼합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데, 소각 시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 게다가 염화 성분이 포함된 폴리염화 비닐을 포함하고 있어 강한 부식성 가스도 배출한다. 여기에 CD 케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하다 보니 최근 CD의 환경오염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음악 CD든, 영화 DVD든 팔리는 것만 팔린다. 그렇다면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한 오래된 CD들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폐기되기 마련이다. 나주에 위치한 공방 ‘바른쓰임’이 CD 케이스 업사이클링에 주목한 데는 여기에 있다. 한 음반 가게가 문을 닫자 대량의 앨범 CD 처리에 문제가 생겼다. CD 케이스부터 시작해 CD까지 혼합 재질의 플라스틱이기에 분리배출이 안 되는데, 바른쓰임이 이를 모두 수거하여 무드등으로 업사이클링 한 것이다.



각자의 개성에 맞춘 도안 그리기

오늘 시야가 탁 트인 나주 본사 31층에서 CD 케이스로 무드등 만들기 체험이 이뤄졌다. 가장 먼저 CD 케이스에 아크릴 펜으로 그릴 도안을 선택해야 한다. 다양한 도안을 한 장 한 장 유심히 살펴보던 이들이 각자 마음에 든 그림을 집어 들었다.

CD 케이스를 열고 바깥 면엔 도안을, 안쪽 면은 도안을 따라 아크릴 펜으로 선을 따는 작업이 시작됐다. 캘리그라피의 경우 아크릴 펜으로 글자를 쓰는 게 아니라 송곳처럼 끝이 뾰족한 도구로 CD 케이스 안쪽 면을 긁어야 하는데, 이 작업이 어려워 보이는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까요?” 강사의 말에 박세진 대리가 용감하게 손 들었다.

길대영 대리는 기존의 도안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그렸다. 바로 <짱구는 못말려>의 부리부리 대마왕이다. 스마트폰으로 부리부리 대마왕을 검색한 후 마음에 드는 포즈를 찾아 그에 맞춰 그리기 시작했다. 이지민 대리와 오상희 대리는 바닷속 거북이 도안을, 이정민 대리는 바다를 헤엄치는 고래를 그려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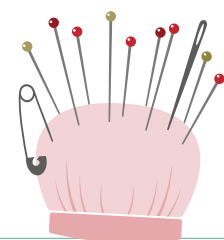
어둠을 밝히는 무드등처럼

모두의 주목을 받은 건 고래를 그린 이정민 대리다. 마치 전 시회에 걸린 미술 작품처럼 근사하게 그렸기 때문. 미대 나온 것 아니냐는 장난 어린 의혹 속에 하나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의외의 복병을 만난 이는 부리부리 대마왕을 선택한 길대영 대리다. CD 케이스 정중앙에 부리부리 대마왕을 그려놓고 보니 2% 허전해 보였기 때문이다. 고민하는 길대영 대리를 향해 주변에서 <짱구는 못말려>에 나오는 강아지 캐릭터 ‘흰둥이’를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길대영 대리가 손뼉을 치며 흰색 아크릴 펜을 집어들었다.

캘리그라피를 선택한 박세진 대리도 위험(?)에 처해 있었다. 글씨를 굵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촌촌하게

굵을수록 불이 들어올 때 예쁘다는 강사의 조언에 눈이 빠저라 CD 케이스를 굵는 박세진 대리가 “손이 너무 아프다”며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곳은 일일수록 완성되면 더 보람이 있는 법. 완성한 CD 케이스를 우드 받침대에 꽂은 후 전원을 켜니 ‘반짝’ 불이 들어왔다. 모두 작은 탄성을 내뿜으며 자신의 작품에 뿌듯해했다. 특히 나주 본사 31층 창가에 두고 보니 시원한 전경이 근사한 배경 역할을 해 CD 케이스 무드등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작은 행복을 쌓은 다섯 사람. 어둠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무드등처럼, 언젠가 유난히 지치고 고된 날이 온다면 오늘을 떠올리며 마음속 어둠을 밝히길 바란다.



*TIP 필요 없는 CD를 바늘꽃이로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 : CD, 자투리 천, 리본 장식, 솜, 글루건

- ① 자투리 천을 CD 케이스 크기보다 여유 있게 잘라줍니다.
- ② CD 가운데에 솜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 ③ 자투리 천을 CD와 솜을 함께 감쌉니다.
이때 솜이 눌리지 않게 조심합니다.
- ④ 글루건으로 CD와 천을 고정시킵니다.
- ⑤ 봉긋 솟아오른 솜 가외에 글루건으로 리본 장식을 부착합니다.

mini interview



박세진 대리
● 에너지생태계조성처

환경을 위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만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길대영 대리
● ICT운영처

오늘 업사이클링 체험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강사님께서 분리배출 등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정민 대리
● 요금전략처

CD 케이스가 분리배출이 안 되는 플라스틱 혼합 재질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나름 분리배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이지민 대리
● 에너지생태계조성처

평소 리사이클링은 많이 하는 편인데, 업사이클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이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거라 마음에 듭니다.



오상희 대리
● 해외원전개발처

지구를 지키는 소중한 한 걸음을 내딛은 듯 해서 보람 참니다. 앞으로도 탄소발자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풍요롭게 저무는 황금빛 태양이
지평선에 이마를 맞대는 순간

온 세상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며
지친 오늘 하루를 토닥여 줍니다.

원영적 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긍정적 사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도 낯선 단어, 럭키비키. 이 단어를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MZ세대들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일 듯싶다. ‘럭키비키’. 행운을 말하는 영어 단어 ‘럭키’와 유명 아이돌인 장원영의 영어 이름 ‘비키’의 합성어로 그 뜻을 말하자면, ‘매우 행운이다’라는 뜻이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MZ세대의 ‘원영적 사고’를 향한 열광

럭키비키를 보여주는 유명한 예가 있다. 이름난 빵집에서 빵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장원영의 앞에서 빵이 다 떨어졌다. 대부분 있는 대로 화가 날 만한 상황. 하지만 장원영은 ‘빵이 다 떨어져서 갓 구운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네. 역시 행운은 나의 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진짜 슈퍼 파워 긍정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MZ세대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 사고를 ‘원영적 사고’라 칭하며 열광한다.

사실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긍정적 사고는 개인의 정신 건강, 대인 관계, 심지어 신체적 건강에까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그런데 원영적 사고는 기존의 긍정적 사고와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긍정적 사고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처럼 현재 처한 상황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점도 많지만, 단순한 회피적 사고라는 비판도 많다.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좋아’를 외치는 것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를 중심으로 한 원영적 사고

원영적 사고는 무턱대고 ‘좋아’를 외치지 않는다. 우선 원영적 사고에는 나를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빵을 못 먹었지만, 그래도 좋아’가 아닌, ‘갓 구운 신선한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한다. 상황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이유를 찾아낸다.

또한, 원영적 사고는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음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빵이 떨어졌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빵이 떨어진 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나’다. 내가 행운의 사람이기 때문에, 행운도 나의 편이 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극도로 높은 자존감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 MZ세대들이 ‘원영적 사고’에 열광하고 있다. IMF 이후 출생하여 성장한 MZ세대에게 사회와 개인의 관계는 이전 세대들과 다르다. 개인주의화가 심화됐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사회적 이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참여하는 것도 MZ세대들 아닌가. 하지만 그들에게 사회란 나를 영원히 지켜주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조직이나 집단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마다하지는 않지만, 그보다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MZ세대다.

따라서 MZ세대들은 상황에 순응하며 내뱉는 ‘괜찮아’에는 거

부감을 보인다. 과거에 유행하던 김제동의 힐링적 조언보다 냉철한 서장훈의 팩트 폭격식 조언에 더 공감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 운이 좋은 ‘나’는, 즉 특별한 나에겐 이 상황도 좋은 거라고 주장하는 원영적 사고는 ‘나’의 가치를 존중하는 MZ세대의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원영적 사고를 위한 ‘한 걸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원영적 사고를 가질 수 있을까? 일단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보통 심리학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권한다. 첫째, 상황의 긍정적인 면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평, 불만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감사함을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웃어라. 가짜 웃음이라도 웃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처럼 웃는 표정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하지만 높은 자존감과 연결된 원영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우선 자신의 장점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 MZ세대들이지만, 자신의 단점은 쉽게 알아차리는 반면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더 개선하는 행위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최근 자존감 고양 방법으로 많이 언급하듯이 가시적이고 성취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를 달성하는 성공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심리적 현상인데, 미신의 수준은 아니고 스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심리학 이론이다. 원영적 사고가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나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모두 원영적 사고로 언제나 행운이 깃든 인생을 살기를 기원한다.

• 내 힐링을 책임져줄 •

달콤한 디저트

누구나 디저트와 관련된 행복한 기억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밤늦게 퇴근한 아버지 손에 들린 부드러운 롤케이크, 엄마를 따라간 시장에서 심심한 입을 채워주던 설탕 범벅 파배기 도넛, 학창시절 친구가 선물처럼 나눠주던 녹진한 초콜릿까지. 이처럼 디저트는 항상 우리의 추억과 맞닿아 있다. 다소 지친 어느 날, 달콤한 추억처럼 내 힐링을 책임져줄 디저트의 세계로 떠나보자.



오늘만큼은 고급스럽게
고종도 즐겨 먹던
까눌레

겉바속촉(겉은 바삭, 속은 촉촉)의 정석이라 할 수 있는 까눌레. 재료의 비율, 소성 공정의 온도,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실패할 만큼 만들기가 까다로워 가격대가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고급스러운 달콤함을 선사한다. 코코넛, 크림 치즈, 녹차 가루, 얼그레이 등 베리에이션해서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 까눌레의 정식 명칭은 '카넬레 드 보르도(Canelés de Bordeaux)'로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아농시아드 수도원에서 18세기경에 만들어졌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황제도 자주 먹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빠빠로? 페이스트리?
추억이 그리울 땐
빨미까레

엄X손파이에 초콜릿을 입힌 듯한 빨미까레는 겉보기엔 빠빠로처럼 생겼다. 하지만 그 맛은 빠빠로와 완벽히 다르다. 겹겹이 쌓인 페이스트리는 바삭하고, 그 페이스트리를 감싼 초콜릿은 달콤하다. 빨미까레의 빨미는 '종려나무'를 뜻하는 프랑스어 팔미에(palmier)와 '네모난'이라는 뜻의 까레(carré)가 합쳐진 말이며, 그 모양이 종려나무 잎을 닮아서 붙여졌다고 한다. 대부분 다크 초콜릿을 사용해 묵직하면서도 씹살한 맛을 내는데, 요즘에는 치즈, 캐러멜을 덧입히거나 초콜릿에 크런치 볼을 묻히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

사르르 녹는 천상의 맛으로
걱정도 녹이는
카이막

백종원 유튜브로 유명해진 튀르키예의 대표 디저트인 카이막. 우유를 약한 불로 천천히 끓여 지방을 분리해 크림처럼 만든 유제품이다. 여기에 꿀을 곁들여 바게트와 함께 먹는 게 일반적으로, 과거 튀르키예에서 손님이 올 때 대접했을 만큼 귀한 디저트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입안에서 순식간에 녹으며, 상당히 진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우유의 지방층을 고농축한 디저트라고 생각하면 쉽다. 카이막을 만들고 난 뒤 남은 우유를 끓여서 레몬즙을 넣고 면포에 걸러 물을 빼면 리코타 치즈가 된다.

디저트의 무한한 변신
오늘 나도 변신해볼까?
크루키

크루아상과 초콜릿칩 쿠키가 만났다. 크루키는 디저트가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프랑스의 한 빵집에서 2022년 선보인 뒤 우리나라에도 상경한 크루키는 크루아상 안에 초콜릿칩 쿠키 반죽을 채워서 구운 디저트다. 바삭한 쿠키와 쫄쫄한 크루아상이 신선한 자극을 준다. 마치 크루아상 속에 소보로를 입힌 느낌이라는 평가가 많다. 쿠키 때문에 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크루아상의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버터 맛이 쿠키의 단 맛을 상쇄시켜 준다.

단순하지만 가장 달콤하게,
복잡스러운 날에는
플랑

플랑은 단 한 마디로 설명 가능하다. '커스터드 푸딩'. 너무나 단순해서 특별한 것 없어 보이는 이 디저트는 단순하기에 가장 달콤하다. 양중맛은 크기의 동그란 플랑이 주는 말캉한 식감은 절로 기분을 좋게 한다. 중남미의 대표 디저트로 현지에서 채소나 고기를 갈아 넣기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타르트로도 즐겨 먹는다. 이처럼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다. 대중적인 맛을 가진 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디저트를 발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삼부점(三不粘)이 대표적인 예다.

초콜릿 속에 국수?
새로움이 필요하다면
두바이 초콜릿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땅, 중동. 그곳의 디저트가 현재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두바이 초콜릿이다. 중동의 얇은 국수인 카다이프를 버터에 볶아 피스타치오 크림과 섞은 후 초콜릿으로 코팅한 두바이 초콜릿은 맛과 식감, 색감까지 이색적이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지난해 두바이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의 먹방 콘텐츠에 등장한 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두바이에서 판매해 '두바이 초콜릿'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 명칭은 'Cant Get Knafeh of It'이다. 같은 패턴의 하루가 지겨워 새로움을 찾는다면 두바이 초콜릿은 어떨까?

PANEL

이영규 부장 • 울산지사 고객센터원부

MBTI가 INTJ인 이영규 부장. 그에 맞춰 조용한 곳에서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평소 전시를 접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생애 첫 전시회 경험을 쌓았다고 한다.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미디어 아트 전시를 통해 클로드 모네의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후기를 남겼다.

양경희 차장 • 울산지사 요금관리부

주말 아침반으로 수업을 배우고 있는 양경희 차장은 그 경력만 7년 차로 수영 '만렙'이다. 최근 문화생활을 해본 기억이 없어 사보를 통해 오래간만에 전시회를 즐겨서 좋았단다. 무엇이든 시작은 힘들어도 일단 발을 내디디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는 가치관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다.

최병창 차장 • 울산지사 배전운영부

외향적인 성향인 최병창 차장은 등산이 취미다. 미디어 아트 전시는 처음이라 모든 게 생겼했다는 그는 당황스러웠던 것도 잠시, 놀라움에 압도되었다고 한다. 또한, 클로드 모네에게 '빛의 시인'이라는 칭호가 붙는 이유를 납득했다고. 미디어 아트 전시를 접하면서 전시회 역시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민광기 대리 • 울산지사 전력공급부

달리기와 등산을 좋아하는 민광기 대리는 꽤나 활동적이다. 예술에도 관심이 많아 연극, 뮤지컬, 미술관 등을 자주 찾아다녔는데, 이번에 울산에서 클로드 모네 미디어 아트 전시회가 개최됐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다. 색채를 독특하게 사용하는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미디어와 합작한 전시회에 무척 기대했다는 민광기 대리는 이번 사보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책, 영화, 전시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 삶에 유용한 영감과 지혜를 얻는 한전인의 'Talk' 시간. 울산지사와 함께 빛의 화가라 불리는 클로드 모네의 미디어 아트 전시 <클로드 모네: 빛의 시인, 모네가 사랑한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클로드모네: 빛의 시인, 모네가 사랑한 순간들>
미디어 아트 전시회

장소: 울산 장생포 문화창고
기간: ~10월 31일

울산 최초의 미디어 아트 전시로, 빛의 화가이자 인상주의를 창시한 클로드 모네의 대표작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빛의 시인을 통해 보는 우리의 찰나

이
영
규

“문화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번 미디어 아트 전시를 통해 클로드 모네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습니다. 마치 제가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인지 몰입감도 높았습니다. 특히 '양귀비 들판'이라는 그림이 인상 깊었는데요. 들판에 서 있는 여자 뒤로 빛과 그림자에 따라 들판의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점들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수련'이라는 작품은 동양적인 느낌이라 다른 작품보다 쉽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Claude Monet

양
경
희

“전시회에 가는 동안 차 안에서 클래식을 들으며 클로드 모네 작품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그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할까 궁금하고 또 기대됐어요. 일과 가정의 테두리 안에 좀처럼 문화체험 시간을 만들 수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Talk 참여가 저에겐 일종의 소화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전시회장에 입장하자마자 '미디어 아트란 이런 거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미술가의 화법을 담은 예술 작품이 사방에서 파노라마처럼 시현되고 있었습니다. 입체감과 동적인 흐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감동적이었어요.”

빛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대기와 사물의 아름다움을
매순간 변화시킨다.

-Claude Monet



최병창 인상주의 창시자인 클로드 모네는 “대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는 대상의 이름을 잊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과 관습이 만든 편견을 뒤로하고 대상(작품)을 바라보길 원했던 화가의 마음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작품들이 기억에 남는 데요. 그중에서 ‘나의 카미유’ 시리즈가 유난히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

**아무리 돌아라도 빛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Claude Monet

민광기 단순히 그림을 작품으로 감상하는 것을 넘어 21세기의 미디어를 통해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표현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틀에서 벗어나 시간에 따라 색이 변화하는 작품을 보며 클로드 모네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림 한 점으로 색채의 변화를 표현했던, 클로드 모네의 작품에만 있는 심오함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하고, 또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표현하면서 클로드 모네의 일생에 대한 간략한 소개까지 곁들인 구성은 클로드 모네를 재해석하는 데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

**나의 인생은 내가 하는 일,
즉 오로지 내 그림만을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다.** -Claude Monet

이영규 클로드 모네가 순간을 포착해 그림으로 남긴 화가로 유명하잖아요. 만일 저에게도 그런 재능이 있다면 제 아이가 첫걸음을 뗀 순간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두고두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거든요. 전시회를 다 둘러보고 난 뒤에는 클로드 모네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방향 또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변화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 수용해 보려고 합니다. ”



양경희 저는 ‘해돋이’라는 작품이 기억에 남습니다. 빛의 근원인 해가 떠올라 조용한 아침 바다를 비추고 있는, 시끄럽지 않은 빨간 덩덩함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오늘 아침도 평안하게 시작하겠구나’ 하는 안심을 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일상의 행복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의 결혼과 아이들의 출생,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더 행복했던 순간들, 부모님을 기쁘게 했던 일들이 가슴 깊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나는 내가 느낀 대로 표현할 수 있기를 원했다. -Claude Monet

최병창 클로드 모네의 작품은 유난히 일상생활과 관련된 게 많더라고요. 작품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은 꾸며지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에 입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역시 많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변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식된 아름다움이 아닌 사실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

**색은 하루 종일 나를 집착하게 만들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든다.** -Claude Mo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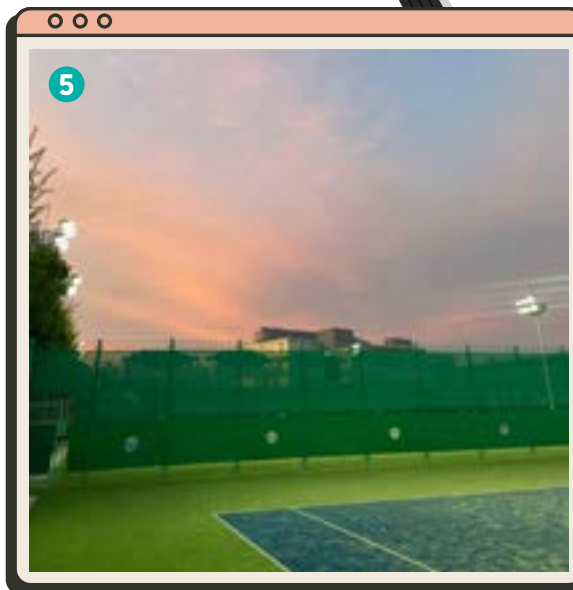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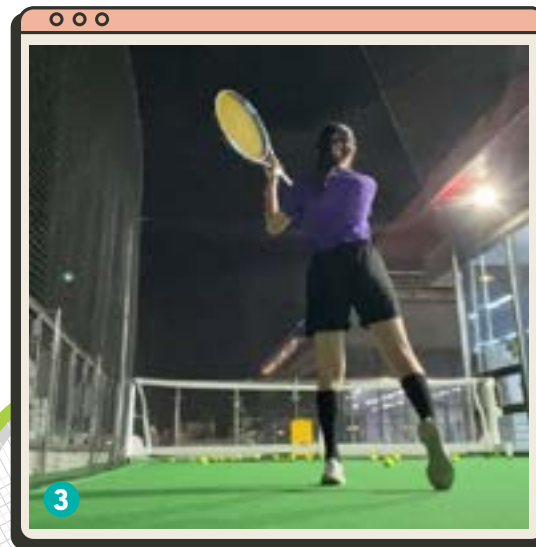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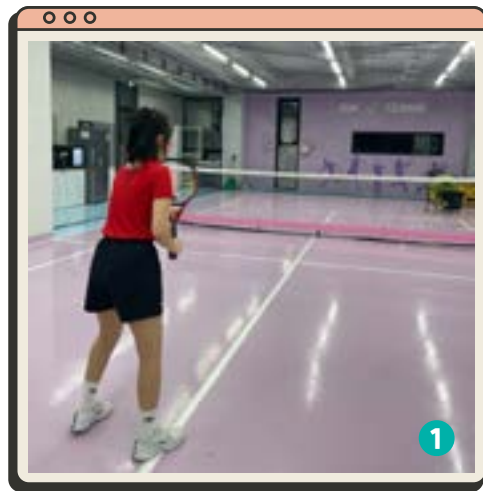
민광기 모네는 그 짧은 찰나를 바라고, 그것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찰나를 포착할 만큼 그의 세상은 느리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에는 모든 게 빨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더욱더 자극적이게 되었고요. 저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모네의 시선으로 그림을 보면서 느리게 바라보는 관점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나는 서서히 눈을 떴고,
자연을 이해하게 되는 한편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았다.**

-Claude Monet



테린이의 좌충우돌 성장기



1 테린이 5개월 차

테린이, '테니스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이제 막 테니스를 시작한 초보자를 뜻합니다. 다시 어린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귀여운 표현입니다. 어쩐지 테린이라는 호칭 뒤에 숨으면 “제 취미는 테니스입니다!”라고 부담 없이 말할 수 있어서 계속 테린이로 머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테린이일 수는 없겠지요? 테린이를 넘어서 테니스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레츠고!

2 브레이크 포인트

처음 테니스를 접하게 된 계기는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였습니다. 2022년 한 시즌 동안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랜드슬램*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상에서는 실제 경기의 모습을 실감 나게 보여주는데, 경기 중에는 긴장된 공기의 흐름 속에서 탕- 탕- 오고 가는 테니스공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다 중요한 순간, 빈 코너로 내리꽂는 스매싱으로 포인트를 획득했을 때의 그 환호와 희열! 심장이 두근두근해져서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4대 테니스 대회(호주오픈, 롤랑가로스, 윌블던, US오픈)

3 테니스를 배워보자!

곧바로 회사 근처 학원에 레슨을 등록했습니다. 주 2회 레슨을 받고, 레슨이 끝난 뒤에는 볼머신과 함께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라켓의 그림을 쥐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다음 포핸드, 백핸드, 발리, 서브 순으로 기본적인 스트로크*를 배웁니다. 평균적으로 1년 정도 배워야 모두 익혔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라켓에 공을 맞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가까스로 맞추더라도 공이 하늘로 솟구치거나, 땅에 꽂혔습니다. 영상에서 보던 선수들의 멋진 모습과는 큰 괴리가 있어, 좌절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레슨을 받고, 연습 영상을 보면서 자세의 문제점을 고치다 보니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디긴 하지만, 구력을 쌓다 보면 근사한 스트로크를 보여주는 날도 오겠죠?

* 테니스 자세

4 라켓을 장만하다!

요즘은 여행을 갈 때도 자연스럽게 테니스와 관련된 장소가 있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얼마 전, 후쿠오카를 가게 되었는데, 테니스용품점이 있어 시간을 내서 둘러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테니스용품을 판매하는 작은 매장이었습니다. 일본 현지 테니스클럽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테니스의 열정이 가득한 주인분과 대화하다 보니 테니스클럽의 문화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궁무진한 테니스 세계!

두 번째로는, 알펜이라는 대형 스포츠용품 전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테니스 라켓이 있어서, 첫 라켓을 구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초보자의 경우, 여자는 260~280g, 남자는 270~290g 사이의 무게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전투력이 세 보이는 빨간색의 윗손 클래쉬 100ul 265g을 선택했습니다! 아주 맘에 듭니다!

5 떨리는 첫 GAME

저희 부서에는 테니스 인구가 많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서 실력이 무르익으면 같이 쳐보려고 얘기만 하다 드디어 얼마 전 첫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코트에서는 처음 쳐보는 것이었는데, 실내 코트에서 연습하던 것과는 다르게 공이 뱅- 뱅- 멀리 날아가서 당황했습니다. 레슨 때 배운 자세는 다 무너지고 공을 넘기기에 급급했지만, 나름 관촬은 랠리가 이어질 때면 무척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초보자끼리 하는 가벼운 게임이었는데도 막상 스코어를 계산하며 집중하다 보니 얼마나 떨리던지! 선수들은 큰 경기에서 어떻게 자신의 기량을 다 펼치는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음에도 어느새 실력이 급성장한 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테니스에 대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을 기다리면서 더욱 열심히 매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수한 이야기를 품은 바다의 맛

기장&기장지사

무수한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기장의 바다는 저마다 다른 얼굴을
지녔다. 세월의 더께가 내려앉은
갯마을의 소박한 풍경도, 외롭게
서 있는 등대도 같은 듯 다른 얼굴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부산의 동쪽 끝에 자리한 기장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기암괴석들이 깨끗한 물빛과 어우러져 서정적인 바다 풍경을 자아낸다. 시리도록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갯마을의 일상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가 되어왔다.

기장군 일광면 학리마을은 소설 갯마을의 주요 배경지로 알려져 있다. 1953년 오영수 작가가 쓴 이 단편소설에서 주인공 해순의 녹록지 않은 삶이 갯마을을 무대로 펼쳐진다.

죽성드림세트장도 기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여행지다. 외국영화에서 본 듯한 성당이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서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는 이곳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오랑대에서 시랑대까지에 이르는 해변에 오시리아 해변길이라는 산책로를 조성해 놓아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기 좋다.

기장은 바닷가 마을답게 미역과 멸치가 유명하며, 공수마을의 짬뽕 구운 먹장어와 일광면 칠암리의 붕장어 구이 등 신선한 해산물이 풍부하다.



© 기장군청



© 기장군청



© 기장군청



무재해 8,977일에 빛나는 안전사업소, 기장지사

기장지사는 도시, 농어촌, 공업, 상업지역이 모두 어우러진 복합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의 대부분이 산악지역과 해안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상시 설비 관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풍수해에도 취약한 사업소다.

급증하는 다양한 공사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설비 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장지사는 무재해 8,977일(2024.08.09. 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안전 사업소다. 8,977일은 24년 192일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90분짜리 영화 143,232편을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기장지사는 '효율에서 안전'이라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한발 앞선 지사라 자부한다.

현재 기장지사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은 시설고객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신규 적기 전력공급이다.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전력반도체 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조성 중인 주거·관광·산업 단지 등 모든 부분에 폭발적인 전력수요 증가에 발맞춰 대규모 사업 계획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 전력공급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장지사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를 품은 바닷가를 누비며 또 하나의 조화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낮의 태양처럼 뜨겁게

수요효율처 박다정 대리

또렷한 발음, 안정적인 톤으로 전력수급 비상훈련에서 인상 깊은 목소리를 들려준 박다정 대리. 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중요해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백방으로 뛰는 수요효율처의 노고를 알리고 싶다고. 업무에서나 일상에서나, 한낮의 태양 같은 열정을 내뿜는 박다정 대리를 표지 촬영 현장에서 만나보았다.

오렌지빛 태양 아래

작열하는 태양빛이 내리쬐는 여름 한가운데, 그보다 더 뜨거운 스튜디오가 있다. 바로 8월호 표지 촬영 현장이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촬영 현장에 계셔서 놀랐어요.” 자신에게 쏠리는 많은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잠시, 프로 모델 못지않은 포즈를 연신 취해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여름의 햇살처럼 반짝이는 눈동자에서 나오는 열기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운다. “제가 사보 표지 모델로 나오다니 영광입니다. 다들 잘한다고 칭찬하셔서 순간 ‘돌잔치가 이런 기분일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기억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 아끼는 마음이 모여

수요효율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요관리와 효율향상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처다. 수요관리 업무 내에서 효율향상 업무가 차지하는 영역이 점차 커지다 보니, 올해 처음으로 처 이름에 ‘효율’이 등장하게 되었다.

‘에너지 효율향상’은 개인과 한전, 국가 모두에게 도움 되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다. 이를 장려하기 위해 고효율 기기 교체 사업이나 에너지 캐시백 등의 다양한 효율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6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이다. 올해는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이에 수요효율처는 각종 수요 자원 점검과 부하차단 계획 수립 등 정상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박다정 대리는 최근 전력수급 비상훈련에 참여했으며,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참여라고 한다. 전력수급 비상훈련은 예비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담당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몸에 익히는 훈련이다. 훈련에 참여하면서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단다. 이를 위해 수요효율처 모두가 땀과 열정을 투입하여 힘쓰고 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한다. 가족, 동료, 지구에 친절히 대하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오늘이 되지 않을까. 다정함은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리고,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는 것처럼 어렵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것처럼.



양구지사



♡ Q ▾

우리 지사는 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기안전교실'을 열었다. 학생들에게 전기안전과 전기절약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미니 태양광 발전기, 미니 풍력발전기 만들기 등의 체험도 진행했다. 아이들에게 전기의 소중함과 안전한 전기사용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양구지사 #방산초등학교 #찾아가는전기안전교실 #미니태양광발전기 #미니풍력발전기 #전기의소중함

경북본부



♡ Q ▾

우리 본부는 안동영명학교 기업 '담다'에서 운영 중인 바퀴달린카페를 후원해 본부 사옥으로 초대했다. 지적발달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로, 직원들이 함께 커피를 마시며 더위를 이겨냈다. 현재 지적발달 장애인 6명이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안동영명학교와 MOU를 체결해 장애인들이 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경북본부 #지적발달장애인의날 #안동영명학교 #담다 #바퀴달린카페 #시원한_커피_한잔

#INSTAGRAM#

이 코너는 KEP-CN과 KEPCO-EPA임소 소식에서 발췌하여 꾸며집니다. 사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주전남본부



♡ Q ▾

우리 본부는 전라남도와 함께 한전의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산불관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전철탑과 같은 한전의 인프라를 활용해 산불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AI 기반의 산불 조기대응 플랫폼을 통해 산불을 조기에 탐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로 하였다.

#광주전남본부 #전라남도 #스마트_산불관리_공동대응_업무협약 #산불조기대응플랫폼 #예방이_먼저

울산, 서울산, 동울산지사



♡ Q ▾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울산권 사업소가 모였다. 울산, 서울산, 동울산지사가 함께 헌혈에 나선 것. 우리의 노력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이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웃에게 생명과 감사를 나누고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울산지사 #서울산지사 #동울산지사 #생명나눔_사랑의_헌혈_행사 #행복한_사회 #서로를_위해

서부산지사



♡ Q ▾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VR로 미리 경험해 보면 어떨까? 우리 지사는 안전보건공단을 초빙해 VR 체험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밀폐공간 질식, 전기공사 감전, 굴착기 깔림, 낙하물 맞음 등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주요 산업재해와 유사한 사례들을 가상 현실로 경험해 보았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한 뜻깊은 시간이었다.

#서부산지사 #VR_체험 #안전교육 #미리_체험 #경각심 #안전관리 #Safety_First!

남서울본부



♡ Q ▾

우리 본부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시행했다. 2022년 8월 서울 남부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를 모티브로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해 실시간 상황보고와 전파를 시행했다. 또한 이를 매뉴얼화해 실제 재난 대응 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서울본부 #여름철_자연재난 #재난대응_모의훈련 #재난안전통신망 #연습이_완벽을_만든다

#원고사전 보내실 곳 eunseonyang@kepco.co.kr 문의 061-345-3128

정보보안실



♡ Q ▾

제12회 산업부 사이버보안 경진대회가 열렸다! 41개 공공기관과 12개의 유관기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쳤는데, 우리 회사는 제어, 정보 분야에 출전해 동시에 우승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업무역량을 강화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회사의 중요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보보안실 #제12회_산업부_사이버보안_경진대회 #최우수상 #산업부_장관상_단체상 #짜릿한_우승

사천지사



♡ Q ▾

우리 지사는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평상시와 다른 전기사용 패턴 탐지 시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알려 대상자의 위급상황 방지와 고독사를 예방하는 AI 서비스다. 앞으로도 사천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천지사 #사천시 #1인가구_안부살핌서비스 #사회안전망_구축 #인공지능 #고독사_예방

KEPCO NEWS

2024. 08



‘국내 전력기자재(K-그리드) 수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전은 7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K-그리드 수출 현장방문 행사’가 열린 HD현대일렉트릭 본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내 전력기자재(K-그리드) 수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과 협약사들은 정례협업체 구성 및 각 기관별 보유 역량을 활용·결합한 수출지원, 해외시장 조사 관련 정보교류 및 인프라 공유 등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인공지능(AI) 확산, 전력설비 노후화 등의 이슈로 인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전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역량을 결집하여 국내 전력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함으로써, K-그리드가 반도체를 잇는 새로운 수출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HD현대 R&D센터에 설치된 1MW급 발당식 직류(DC) 배전 시스템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 시스템은 한전과 HD현대일렉트릭이 공동 개발하여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향후 사업소 사옥 신규 건설 시, 한전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들을 적극 도입한 에너지자립율 120%의 “LVDC 기반 제로에너지 빌딩 플러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사업 동반진출 콘퍼런스 개최

한전은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K-그리드 수출 현장방문 행사’ 후속으로 7월 17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 등 각계의 전력산업 전문가 200여 명을 초청해 ‘e신사업 동반진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가 에너지 산업의 혁신 성장과 수출 동력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에너지신사업 아이템 및 전력산업 관련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 ‘해외 에너지신사업 동반진출 전략’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개척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참석자들은 국내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해외로의 도약을 위해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집중 안전점검 및 전력설비 안정적 운영 총력

한전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 동안 주요 설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전력설비 고장 예방을 위하여 철탑 등 송배전 설비에 대한 보수·보강 등 예방 조치를 완료했다.

집중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해 이준호 안전&영업배전부사장, 서철수 전력계통부사장 등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 합동점

검을 시행하였으며,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고 발생시 대규모 정전 등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설비 596개소, 시민 재해 및 일반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설비 247개소, 상습 침수지역 내 설비 22개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국내 최초 336MW 대용량 ESS 건설

한전은 7월 19일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나노산단 내 부북변 전소에서 336MW 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최초로 가압했다. 이번 사업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6개 변전소(영주·함양·예산·영천·신남원·부북)에서 시행된 총 용량 978MW ESS 건설사업 중 마지막 가압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용량이다.

이번 가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무탄소 전원 연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최대 1GW의 발전제약 완화가 가능하여 전력공급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사업 준비부터 설비 개선 및 최종 가압까지 모든 과정을 국내 ESS 대표 기업(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G전자, 삼성SDI 등)과 관련 기관(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배너리산업협회, 전기산업진흥회 등)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국가 미래성장에 기여한 모범적인 사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최초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한전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6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정부 재난관리평가’는 기관들의 재난관리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 중인 평가제도로,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중앙부처 29, 공공기관 66, 지자체 243)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역량을 종합 진단하여 ‘우수·보통·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한전은 코로나19로 평가가 미시행된 2021년(2020년 실적)을 제외하고 2018년(2017년 실적)부터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력·가스·석유 등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중 최초의 사례다.

전력망 건설 범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제1차 미래전력망 포럼’ 개최

한전은 7월 4일 양재 힐튼가든인 호텔에서 서철수 전력계통본부장, 고려대 이병준 교수 등 30여 명의 전력 계통 및 정책, 시장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전력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에너지안보 확립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전력시장 세분화 등 전력산업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력계통 거버넌스 정립에 대해 정부·학계·유관기관 전문가 간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한전 송변전건설단 이성학 건설혁신실장은 전력망 적기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주민 수용성 향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규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소기업과 손잡고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 시장 첫발

한전은 7월 23일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전력대학교인 IT PLN, 국내 에너지 혁신기업인 타이드 코리아 및 차지인과 함께 전기차 충전 수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전은 참여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충전 자동결제 시스템 개발 및 현지 맞춤형 표준화를 추진하여 향후 본격적인 시장 진출에 대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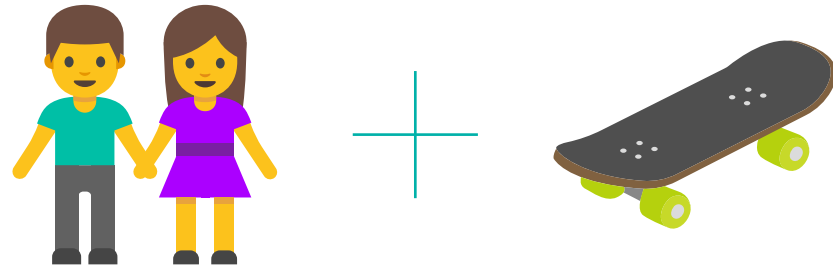
01

이모지 댄스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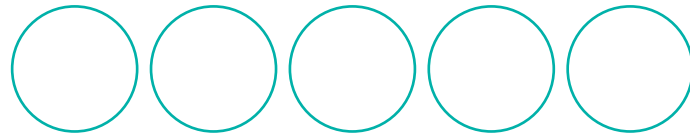
퀴즈 및 설문조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Hint. 20~21쪽 'ZOOM IN'에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이 그룹은?

다음 이모지를 보고 정답을 맞춰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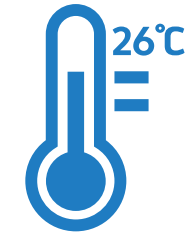
정답



02 퀴즈 당첨자 및 설문조사 참여자

송*수(9157)	윤*화(6795)	김*락(1791)	정*욱(2428)	허*현(6566)
최*서(5894)	박*규(0006)	강*묵(8331)	김*경(1590)	장*진(0324)
김*환(0904)	정*석(2690)	최*진(9288)	조*숙(7033)	민*식(4455)
전*형(3910)	허*웅(7539)	서*혜(0218)	최*정(0609)	원*연(9012)
김*호(6826)	신*하(9386)	김*현(0981)	오*운(1204)	홍*이(2388)
김*창(5629)	김*수(3249)	허*석(9372)	박*민(0610)	문*준(7252)

03 지난호 정답



에어컨 온도 1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 26도)
월 10,923원



영업종료 1시간 전
냉방 끄기
월 23,573원



문 닫고
냉난방하기
월 27,214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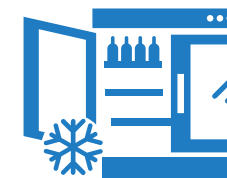
고효율 조명
이용하기
월 75,84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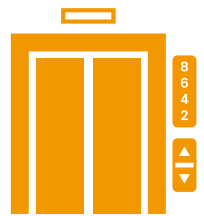
영업시간 외
조명 소등하기
월 80,346원



낮시간 자연 채광
이용하기
월 9,874원



개방형 냉장고
문 닫아 사용하기
월 161,618원



승강기
격층 운행하기
월 32,891원